

개정된 북한의 띄어쓰기 규정

북한에서는 최근에 띄어쓰기 규정을 개정하였다. 1987년 5월 15일 국어사정위원회의 이름으로 제정한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법, 문화어발음법 가운데 띄어쓰기 규정을 새로 만들어 ‘조선말 띄어 쓰기규범’이라는 이름으로 공표한 것이다.

북한의 띄어쓰기 규정은 1990년에도 일부 개정된 바 있는데, 이는 명사 앞에 접미사 ‘-형’, ‘-식’, ‘-적’, ‘-용’, ‘-급’, ‘-성’이 붙은 명사가 오는 경우에 띄어 쓰도록 되어 있던 것을 붙여 쓰도록 고친 것이었다(『문화어학습』 1990년 2호). ‘로동신문’은 2000년 2월 27일부터 3월 21일 사이에 8회에 걸쳐 기사 형식으로 북한의 개정된 띄어쓰기 규정을 소개하였는데 제1회는 로동신문 기자 강국치, 제2회~제7회는 국어사정위원회 리근용, 마지막 제8회는 국어사정위원회 서기장 심병호가 필자로 되어 있다. 아래의 글은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 것이다.

첫째, ‘-아’, ‘-어’, ‘-여’형 어미의 다음에 오는 단어는 띄어 쓰며 ‘있다’는 앞 말과 띄어 쓴다. ‘만나 보다’, ‘먹어 보다’, ‘전개되어 오다’, ‘먹고 있다’, ‘가고 있다’ 등이 그 예이다. 또, ‘-고’의 경우에도 그 뒤에 자립적인 동사가 오는 경우에는 모두 띄어 쓰게 되어 있다.

둘째, 품사가 다른 단어들은 원칙적으로 띄어 쓴다. 종전에는 ‘눈멀다’, ‘끝맺다’처럼 썼으나 이제는 ‘눈 멀다’, ‘끝 맺다’, ‘과도 사나운 기습’, ‘꽃 피는 마을’, ‘잠 자다’처럼 쓴다. 그러나 서로 다른 품사들을 붙여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1음절 관형사와 1음절 명사가 어울리는 경우와 관형사가 명사와 결합하여 일정한 대상의 명칭, 직제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이다. 전자의 예는 ‘새날’, ‘첫술’, ‘순금’ 등이고, 후자의 예는 ‘총참모장’, ‘총지휘자’ 등이다.

셋째, 단어들 사이에 어미가 붙고 품사가 다르더라도 ‘하나의 뜻덩이’로 보고 붙여 쓰는 일이 있다.

- 하나의 대상, 하나의 움직임은 나타내는 ‘강성대국’, ‘사회주의건설’, ‘검바위’, ‘지난해’ 등은 붙여 쓴다. 전자 들은 하나의 대상을 나타내고, ‘검바위’, ‘지난해’ 역시 ‘검은 색을 띤 바위’, ‘지나간 해’라는 하나의 대상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 사람들의 언어 의식에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말인 ‘된장’, ‘붉은기’, ‘늦잠’은 붙여 쓴다. ‘된 장’으로 띄어 쓰면 ‘뭍은 장’과 대립되면서 의미가 달라진다. ‘붉은기’, ‘늦잠’은 ‘푸른 기’, ‘올 잠’과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붙여 쓰는 경우를 세분하면 아래와 같다.

- ① ‘-색’, ‘-빛’, ‘-기’ 등이 ‘-ㄴ(르)’으로 끝난 단어 뒤에 붙을 때: 붉은색, 잔돈
- ② 명사가 조사 없이 수사나 부사와 어울릴 때: 2중영웅, 3천리강산
- ③ 조사 없는 말 뒤에 ‘-하다’, ‘-지다’, ‘-치다’... 등이 올 때: 일하다, 값지다, 굽이치다
- ④ ‘앞’, ‘뒤’, ‘곧’, ‘겹’이 동사, 형용사와 어울릴 때: 앞서다, 뒤늦다, 곧가다, 겹쌓이다
- ⑤ 같거나 반대되는 말들이 결합하거나 앞 말에 ‘같이’, ‘같이’, ‘없이’가 결합할 때: 하나하나, 들쭉날쭉, 오락가락, 가슴깊이

단, 위에서 모두 5개 단어 이상을 붙여 쓸 수 없다: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구상 실현.

넷째, 의존 명사는 원칙적으로 앞 단어에 붙여 쓴다.

- 의존 명사는 앞 단어에 붙여 쓴다. ‘물을 떠나서 살수 없다’, ‘아는것이 힘’ 같은 것이 그 예이다.

- 의존 명사 뒤에 오는 단어는 띄어 쓴다. ‘우리측 대표’ 등의 예가 있다. ‘측’은 우리 문법에서도 의존 명사로 되어 있다.

- 단위 명사도 앞 말에 붙여 쓴다. ‘토끼 세마리’, ‘양복 다섯벌’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 ‘등, 대, 겹’은 앞 뒤 단어와 띄어 쓴다.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일’, ‘서재 겹 응접실’, ‘의학대학 대 기계대학’ 등 예가 있다.

- ‘-형’, ‘-식’, ‘-적’, ‘-용’, ‘-급’, ‘-성’ 뒤에 오는 단어는 붙여 쓴다. ‘혁명적군인정신’, ‘최신형비행기’, ‘자동식열쇠’ 등 예가 있다. 이는 1990년의 부분 개정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다섯째, 나라 이름, 사람 이름, 정당, 사회 단체, 회의 이름 등 고유한 대상의 이름은 붙여 쓴다.

- 고유한 대상의 이름은 붙여 쓴다.

① 성과 이름을 나타낼 때: 리옥금, 독고순

② 고유한 명칭에 ‘회의’, ‘대회’ 등이 붙을 때: 전국농업일군대회, 소왕청 방어전투

③ 고유한 명칭에 수사가 붙을 때: 평양제1고등중학교, 1만톤프레스

④ 부서 이름과 직제가 줄어들 때: 시당책임비서, 과학지도국장

- 고유한 대상의 이름도 띄어 쓰는 경우가 있다.

① 고유한 명칭에 조사가 끼이는 경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② 고유한 명칭이 단계적으로 내려가는 경우: 평양시 중구역 경림동

③ 회의, 대회, 토론회, 보고 대회: 보천보전투승리 50돐기념 중앙보고회

④ 외국의 고유한 명칭은 그 나라 표기에 따름: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

- 성명, 직명의 뒤에 오는 부름말, 칭호는 붙여 쓴다. ‘정성옥영웅’, ‘박영희선생’ 등이 그 예인데 이 때 ‘박영희 선생’이라고 띄어 쓰면 ‘박영희의 선생’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글자로 된 이름에 직제가 붙는 경우는 띄어 쓴다. ‘김철 부부장’ 등이 그 예인데 이를 ‘김철부부장’이라고 붙여 쓰면 ‘김철부 부장’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또, 고유 명칭의 앞에 오는 칭호나 동격어도 위 조항에 준하여 띄어 쓴다. ‘3대혁명붉은기’, ‘남새작업반’, ‘천하명승 금강산’ 등이 이에 속한다.

여섯째, 수사는 원칙적으로 띄어 쓴다.

- 정수는 ‘백’, ‘천’, ‘만’, ‘억’, ‘조’ 등을 단위로 띄어 쓴다. 하나부터 아홉 아홉까지는 붙여 쓴다.

- 분수는 단위마다 띄어 쓰며 ‘-째’, ‘-번째’ 뒤에 오는 단어는 띄어 쓴다. ‘삼과 오분의 이’, ‘다섯째 며느리’, ‘둘째 줄’ 등의 예가 그것이다.

- 단위 명사 앞의 ‘수’, ‘-여’, ‘몇-’, ‘여러-’와 단위 명사 뒤의 ‘이상’, ‘이하’, ‘미만’ 등은 단위 명사와 붙여 쓴다. ‘수백명’, ‘수십여개’, ‘5명이상’, ‘10살 미만’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 ‘한’은 ‘어떤’, ‘어느’의 뜻일 때에는 띄어 쓰고, 체계상 한두 개로 되어 있는 것을 가리키거나 ‘같은’의 뜻일 때에는 붙여 쓴다. ‘한 간호원에 대한 이야기’는 전자의 예이고, ‘한손에 총을 들다’, ‘한자리에 모였다’는 후자의 예이다.

일곱째, 학술 용어는 원칙적으로 붙여 쓴다.

- 서로 다른 품사가 결합되어도 붙여 쓴다. ‘머리딛히기’, ‘함께살이동물’ 등이 그 예이다.

- 조사나 어미가 끼인 경우도 붙여 쓴다. ‘먼바다’, ‘던져넣기법’ 등이 이에 속한다.

- ‘~는 기계’형도 붙여 쓴다. ‘모내는기계’, ‘짐싹고부리는기계’가 그 예이다.

- 고유한 명칭 뒤에 조사 ‘의’가 올 때에는 띄어 쓴다. ‘뉴턴의 제3법칙’이

그 예이다.

여덟째, 앞의 조항들에 속하지 않는 특수하게 쓰이는 어휘의 띄어쓰기는 아래와 같이 한다.

- 시간·공간의 의미를 가지는 후치적 명사 ‘앞’, ‘뒤’, ‘결’, ‘밑’, ‘안’, ‘밖’ … 등은 앞 단어의 뜻을 보충해 주는 역할밖에 못하므로 앞 말에 붙여 쓴다. ‘당앞에 다진 맹세’, ‘인민들속에 들어 가다’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관형사형 뒤에서는 ‘빨간 속을 파먹었다’처럼 띄어 쓴다.

- ‘부문’, ‘분야’, ‘기관’, ‘담당’, ‘이상’, ‘이하’ 등이 붙은 단어와 그 뒤의 단어와는 띄어 쓴다. 그러나 이들이 앞에 오고 그 뒤에 단어가 올 때에는 붙여 쓴다. ‘농촌경리부문 일군’은 전자의 예이고, ‘부문위원회’, ‘기관책임자’는 후자의 예이다.

- 앞의 명사, 대명사를 받는다고 할 수 있는 ‘자신’, ‘자체’, ‘전체’, ‘전부’, ‘일행’, ‘일체’ … 등은 앞 말에 붙여 쓴다. ‘기사장자신’, ‘지구자체’, ‘로동자전체’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정리 : 전수태(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관))